

## 중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분석

정경화\*,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Kyung-Hwa Jung\*, Ki-Seung Kim

Dept.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이 논문은 중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부모애착 관계와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00중학교 1-3학년 학생이다. 개인특성은 성, 학년, 성적, 부모의 학력, 경제수준이며, 부모애착은 상호신뢰, 소외, 의사소통이다. 진로성숙도는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개인특성에 따른 부모애착의 관계에서는 성, 성적, 부모학력, 경제수준의 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 중에 모의 애착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성별의 차이를 보였으며, 성적은 부모 모두에서 부모의 성적이 높을수록 애착이 높게 나타났고, 경제수준은 부모 중에 부에서만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외는 부모 중에 부에게서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신뢰와 의사소통은 모두 부모 중에 모에서만 정(+)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중 확신성을 빼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결정성은 모의 의사소통이 목적성은 모의 상호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준비성은 부의 상호신뢰와 모의 의사소통에서 독립성은 부의 부(-)적 소외와 모의 정(+)적 상호신뢰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시기 중에 사춘기를 겪는 중학생들의 부모와의 관계 진로성숙에 대한 행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단 특정 지역과 소수의 중학생을 표본으로 진행한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differences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attachment affect the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rades 1-3 in Asan, South Korea.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ed gender, grade, grades, parental education, and economic level, while parental attachment included mutual trust, alienation, and communication. Career maturity included determinism, objectivity, readiness, independence, and assurance. Results show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grades, and economic level. Only gender differences affected attachment to mothers, with female students exhibiting stronger effects than male students. Grades that both the father and the mother showed differences. The economic level differed only in father's attachment.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were found to be higher in career maturity with lower father's alienation and higher mother's mutual trust. Career maturity did not affect the assurance variable. Mother's communication affected determinism and mutual trust affected objectivity. Father's mutual trust and mother's communication affected readiness, and father's alienation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Mother's mutual trust positively affected independence. These results may be a valuable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behavioral psychology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generalizability of this study.

**Keywords** : Parental Attachment, Career Maturity, Mutual trust, Isolation, Communication, Determination, Purpose, Assurance, Readiness, Independence

\*Corresponding Author : Kyung-Hwa Jung(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Tel: +82-10-9922-7945 email: swithom66@naver.com

Received August 10, 2018

Revised (1st September 3, 2018, 2nd september 11,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 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진로선택이고 진로선택은 특정시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일생에 걸쳐서 일어난다. 하지만, 인생의 첫 진로를 결정하고 고민하는 시기는 청소년 시기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 중에도 중학교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라 방황하기 쉽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못 찾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 시기 중에서도 중학교 시기는 자아 정립이 덜 되어 있고 어린이에서 청소년 시기로 넘어가는 단계라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지지 않은 시기이고 부모와 주변의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1, 2]. 애착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1]에서는 부모애착, 자아정체감, 진로성숙도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역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2]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수준은 부모의 애착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쳤고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3]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와의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애착에 관한 연구 중에는 대체로 교사의 애착보다는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4, 5, 6] 미쳤다. 연구[5]에서는 부모의 애착과 또래애착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부터는 점차 친구들이 좋아지는 시기로 부모와의 애착이 덜해지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중학교시기의 부모와의 애착이 자기효능감이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애착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증명되었지만,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의 5개 하위변인 별로 영향분석은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하여 차이검증을 했고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영향여부를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중에서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부모애착에서 부모와의 애착을 부의 애착과 모의 애착으로 나누어 부와 모와의 애착에 대한 차이분석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는 진

로성숙도로 하여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개인 특성별로 부모애착과의 차이는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했다. 진로결정에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시기에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시기에 부모와의 애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개인특성별로는 성, 학년, 성적, 부의 학력, 모의 학력, 가정경제수준 등으로 설정하였고, 부모애착의 하위요인은 상호신뢰, 소외, 의사사통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은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총 450부가 배포되었고, 그중 380부가 회수되었다. 그중 설문지의 응답이 부실하거나 무응답의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35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개인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남학생 180명(50.8%), 여학생 174명(49.2%)이고 1학년 117명(33.1%), 2학년 119명(33.6%), 3학년 118명(33.3%)이었다.

성적은 ‘상’ 76명(21.5%), ‘중’ 213명(60.2%), ‘하’ 65명(18.4%)이고 부의 학력은 ‘중졸이하’ 5명(1.4%), ‘고졸’ 130명(36.7%), ‘전문대졸’ 8명(2.3%), ‘대졸’ 190명(53.7%), ‘대학원졸’ 21명(5.9%)이며, 모의 학력은 ‘중졸이하’ 4명(1.1%), ‘고졸’ 167명(47.2%), ‘전문대졸’ 10명(2.8%), ‘대졸’ 153명(43.2%), ‘대학원졸’ 20명(5.6%)이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 54명(15.3%), ‘중’ 290명(81.9%), ‘하’ 10명(2.8%)이다.

Table 1. frequency analysis

Variable		N	%
Sex	male	180	50.8
	female	174	49.2
Grade	1Grade	117	33.1
	2Grade	119	33.6
	3Grade	118	33.3
Grades	hige	76	21.5
	middle	213	60.2
	low	65	18.4
F_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5	1.4
	High school	130	36.7
	College school	8	2.3
	University school	190	53.7
	Graduate school	21	5.9

M_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4	1.1
	High school	167	47.2
	College school	10	2.8
	University school	153	43.2
	Graduate schoo	20	5.6
Economic -level	hige	54	15.3
	middle	290	81.9
	low	10	2.8

1-3. 조사도구

본 연구 주제인 중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인인 부모애착에 관한 설문은 부모 및 동료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 1992)가 개발한 부모 및 동료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를 수정하고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을 분리시켜 부, 모, 동료 애착 개정본(IPPA-R)를 완성한 옥정(1998)의 연구[7] 중에서 동료를 뺀 부, 모의 애착부분만을 사용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25개 문항을 선행검사(pre-test)를 실시하여, 상호신뢰, 소외, 의사소통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최종 23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사용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등 5점 Likert로 구성하였다. 부와 모를 따로 처리하였고 질문지의 요인별 문항 수, 신

뢰도, 타당도 및 요인별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분석은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method)로 회전 방식은 오블리민(oblimin)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검증은 문항내적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알파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 애착(KMO>.5, Bartlett의 p<.05)과 모 애착(KMO>.5, Bartlett의 p<.05)의 결과로 타당도가 증명되었고 신뢰도는 부 애착(상호신뢰(.917), 소외(.844), 의사소통(.788)), 모 애착(상호신뢰(.908), 소외(.831), 의사소통(.790))등 3개의 요인 신뢰도 역시 증명되었다. 부모애착의 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3개의 하위요인이 서로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의 애착에서는 상호신뢰와 의사소통 및 소외 변인 모두에서 부(-)적 관계를 나타내어 상호신뢰가 높을수록 소외는 낮았지만, 의사소통 역시 낮게 나와 부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높다고 의사소통이 같이 높지는 않았다. 반면, 모의 애착은 상호신뢰와 의사소통이 정(+)적 관계로 나타났고 소외와는 부(-)적 관계로 나타나 상호신뢰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은 높지만 소외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 설문은 이기하(1997)연구[4] 논문에서 개발된 도구를 본 논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47개의 문항을 선행검사

Table 2. Reliability & Correlation (Father\_Attachment)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M	SD	Correlation		
					1	2	3
Mutual trust	11	.917	3.8041	.69383	1		
Isolation	8	.844	2.0454	.69667	-.741**	1	
Communication	4	.788	3.4859	.79734	-.730**	.582**	1
KMO(Kaiser-Meyer-Olkin)					.955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4070.290	
				df(p)		253(.000)	

\*p<.05, \*\*p<.01, \*\*\*p<.001

Table 3. Reliability & Correlation (Mother\_Attachment)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M	SD	Correlation		
					1	2	3
Mutual trust	10	.908	3.6428	.59163	1		
Isolation	8	.831	2.0352	.68362	-.690**	1	
Communication	5	.790	3.5696	.72966	.854**	-.651**	1
KMO(Kaiser-Meyer-Olkin)					.950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3758.192	
				df(p)		253(.000)	

\*p<.05, \*\*p<.01, \*\*\*p<.001

(pre-test)을 실시하여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최종 28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사용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5점 Likert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요인별 문항 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별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진로성숙도의 KMO>.5, Bartlett의  $p<.05$ 로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신뢰도는 결정성(.908), 목적성(.841), 준비성(.741), 독립성(.722), 확신성(.765)등으로 요인의 신뢰도 역시 증명되었다. 5개의 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결정성은 독립성과 확신성과의 관계에서 정(+ )적 관계를 보이고 목적성과 준비성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관계를 보여 결정성이 높을수록 독립성과 확신성이 함께 높게 나타난 반면 목적성과 준비성은 낮게 나타났다. 목적성은 준비성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결정성, 독립성, 확신성과는 부(-)적 관계를 보여 목적성이 낮을수록 결정성, 독립성, 확신성이 높게 나타났다. 준비성은 결정성과 독립성과는 부(-)적 관계를 확신성과는 정(+ )적 관계를 보여주어 준비성이 낮을수록 결정성과 독립성이 높고 확신성은 낮게 나타났다. 독립성은 결정성과 확신성과 정(+ )적 상관관계를 목적성과 준비성과는 부(-)적 관계를 보여 독립성이 높을수록 결정성과 확신성이 높은 반면 목적성과 준비성은 낮게 나타났다. 확신성은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과의 관계에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목적성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확신성이 높을수록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이 높은 반면 목적성은 낮게 나타났다.

1-4. 자료처리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19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이용하여 개인특성별 빈도수와 분포율을 구하였다. 둘째,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의 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추출방식으로는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method)를 회전방식으로는 오블리민(oblimin)등을 사용하였다. 셋째,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의 신뢰도 검증은 문항내적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알파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학생의 개인 특성별 부모애착과의 차이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의 사후검정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였다. 다섯째,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

2-1. 개인특성별 부모애착과의 차이분석

개인특성별 부모애착과의 차이검증에서 성, 성적, 가정경제수준에서만 부모애착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고 학년과 부모의 학력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성별 부모애착과의 차이검증에서는 부의 애착에서는 남·여 모두 차이가 없었으나, 모의 애착( $t=-2.714,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모와의 애착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4. Reliability & Correlation (Career Maturity)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Alpha	M	SD	Correlation					
					1	2	3	4	5	
Determination	9	.908	3.2823	.83775	1					
Purpose	8	.841	2.5063	.66540	-.350**	1				
Readiness	5	.741	3.2045	.72640	-.247**	-.045	1			
Independence	2	.722	3.8507	.78129	.344**	-.296**	-.268**	1		
Assurance	4	.765	3.2169	.76777	.584**	-.485**	.105*	.163**	1	
KMO(Kaiser-Meyer-Olkin)					.950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3758.192	
					df(p)				253(.000)	

\* $p<.05$ , \*\* $p<.01$ , \*\*\* $p<.001$

Table 5. Differences between gender and parental attachment

Variable	M		SD		t	p
	male (n=180)	female (n=174)	male (n=180)	female (n=174)		
F_Attachment	5.0712	5.4056	1.82117	1.98558	-1.652	.099
M_Attachment	5.1388	5.6624	1.77766	1.85282	-2.714	.007**

\*p<.05, \*\*p<0.1, \*\*\*p<.001

성적별 부모애착과의 차이검증에서는 부(F=6.466, p<.01)와 모(F=7.433, p<.01)의 애착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은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검증을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의 애착에선 성적이 ‘상’인 집단은 성적이 ‘하’인 집단과 차이를 보여 성적이 ‘상’인 학생은 성적이 ‘하’인 학생들과 부의 애착에 차이를 보였지만, 성적이 ‘중’인 집단에서는 ‘상’과 ‘하’의 집단 모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모의 애착에서는 성적이 ‘상’과 ‘중’인 집단 모두 성적이 ‘하’인 집단과 차이를 보였고 ‘상’과 ‘중’의 집단은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경제수준별 부모애착과의 차이검증에서는 모의 애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의 애착(F=4.788, p<.01)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별 차이검증을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과 ‘중’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은 ‘상’과 ‘중’ 집단 모두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제수준이 상위층과 중위층간에는 부의 애착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층과는 차이를 보여 경제적 수준에 대해 수준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모의 애착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6. Differences from parental attachment by gradel

Variable	N	M	SD	F	p	Post-test				
						Average difference	Standarderror	p		
F_Attachment	H	76	5.811	2.139	6.466	.002	M	.611	.251	.053
							L	1.133	.318	.002**
	M	213	5.200	1.823			H	-.611	.251	.053
							L	.522	.266	.148
	L	65	4.678	1.734			H	-1.133	.318	.002**
							M	-.522	.266	.148
M_Attachment	H	76	5.914	2.117	7.433	.001	M	.503	.240	.113
							L	1.170	.304	.001**
	M	213	5.411	1.677			H	-.503	.240	.113
							L	.667	.255	.034*
	L	65	4.743	1.782			H	-1.170	.304	.001**
							M	-.667	.255	.034*

\*p<.05, \*\*p<0.1, \*\*\*p<.001

Table 7. Differences from parental attachment by economic level

Variable	N	M	SD	F	p	Post-test				
						Average difference	Standarderror	p		
F_Attachment	H	54	5.892	2.060	4.788	.009	M	.748	.280	.029*
							L	1.577	.650	.054
	M	290	5.145	1.877			H	-.748	.280	.029*
							L	.829	.607	.395
	L	10	4.316	0.995			H	-1.577	.650	.054
							M	-.829	.607	.395

\*p<.05, \*\*p<0.1, \*\*\*p<.001

**2-2.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첫째, 진로성숙도 5개의 하위변인의 평균값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부 애착의 변인 중 부-소외(B=-.115, t=-2.286, p<.05)요인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부의 소외가 낮을수록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 애착변인에서는 소외 변인을 제외한 상호신뢰(B=.179, t=4.856, p<.001)와 의사소통(B=.060, t=1.931, p<.05)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모의 상호신뢰와 의사소통이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성숙도의 5개의 하위변인(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애착의 3개의 하위변인(상호신뢰, 소외,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9와 같다.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에서는 부의 애착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모의 의사소통(B=.261, t=4.832, p<.001)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모와의 의사소통이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성에서도 부의 애착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모의 애착변인 중 상호신뢰(B=.150, t=2.287, p<.05)변인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모의 상호신뢰가 학생의 진로성숙도의 목적성에 영향을 미치며 모의 상호신뢰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목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성에서는 부와 모의 애착 모두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상호신뢰(B=-.159, t=-2.20, p<.05)와 모의 의사소통(B=-.326, t=-4.136, p<.001)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어 부와 모의 상호신뢰가 낮을수록 모와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진로의 준비성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은 부의 소외 (B=-.238, t=-2.643, p<.05)에서는 부(-)적 영향을 보였고 모의 상호신뢰(B=.303, t=4.643, p<.001)에서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부의 소외가 낮을수록 모의 상호신뢰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확신성에서는 부와 모의 변인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신성은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DV	IV	B	SE	β	t	p	Durbin-Watson	R <sup>2</sup>
Career maturity	constant	.2018	.169		11.938	.000	2.004	.157
	F_Isolation	-.115	.050	-.257	-2.286	.023		
	M_Mutual rust	.179	.037	.389	4.856	.000		
	M_Communication	.060	.031	.141	1.931	.048		

**Table 9.**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the Sub-Variables of Career Maturity

DV	IV	B	SE	β	t	p	Durbin-Watson	R <sup>2</sup>
Determination	constant	.001	.050		.027	.978	1.801	.062
	M_Communication	.261	.054	.249	4.832	.000		
Purpose	constant	.000	.047		.005	.996	2.106	.101
	M_Mutual rust	.150	.069	.153	2.287	.029		
Readiness	constant	-.002	.044		-.050	.960	2.011	.128
	F_Mutual trust	-.159	.072	-.172	-2.205	.028		
	M_Communication	-.326	.079	-.338	-4.136	.000		
Independence	constant	-.002	.044		-.042	.967	1.987	.096
	F_Isolation	-.238	.104	-.254	-2.643	.023		
	M_Mutual rust	.303	.065	.330	4.643	.000		

### 3.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과 부모의 애착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어 부모의 애착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했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개인특성별 부모애착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특성 중 성, 성적, 가정경제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학년과 학생부모의 학력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이를 보인 특성 중 성별부분에서 부의 애착에는 차이가 없었고, 모의 애착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애착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적과 부모애착과의 차이검증에서는 부와 모의 애착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부와 모의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과 부모와의 애착에서는 모의 애착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의 애착에서는 차이를 보였고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의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경제적 여유가 높은 가정일수록 부와의 애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진로성숙도의 전체평균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부와 모의 3가지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의 애착 변인 중에 부의 소외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연구[2]에서 남학생에 대해 부의 애착안정성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였다. 반면 모의 애착에서는 소외를 뺀 상호신뢰와 의사소통 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모와는 소외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별 영향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성에서는 모와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고, 진로준비성에서는 모와의 상호신뢰가 높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으며, 진로준비성에서는 부와의 상호신뢰가 낮을수록 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높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와 부모의 애착이 낮을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독립성에서는 부의 소외가 낮을수록 모와의 상호신뢰가 높을수록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와 부의 관심과 모의 신뢰가 스스로 진로를 세울 수 있는 독립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2]에서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연구[4, 5, 6.]에서 부모의 애착이 자기진로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같은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청소년시기에는 부모애착 만큼 또래애착[17, 18, 21]도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애착 뿐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여부[10, 15, 16]도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시기 중 고등학생의 연구[20]에서는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만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활동 등 구체적인 추가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기 중 고등학교 시기와 다르게 중학교 시기에서는 대체로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성숙도와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와의 애착이 밀접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학교 시기는 부모님께 반항도 하고 부모님의 관심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시기이다. 즉, 반항심과 모험심이 발현되어 자칫 어긋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아이와 부모는 소통과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상호 애착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부와 모를 구분해서 차이검증과 영향검증을 진행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연구대상의 범위가 충남의 한 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라 전체를 일반화 할 수 없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하다 하겠다.

### References

- [1] Y. J. Song, "Relationships of Parent Attachment, Self-Identity, and Career Matur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eokang University, Seoul, 2006.
- [2] S. Y. Kim, "A study of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al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5.
- [3] Y. K. Hong, "The Study on The Effects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Communication Type with Parent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 on Career Maturity: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s",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2012.
- [4] B. W. Lee, "A study for the effect of Adolescent's attachment factors and self-esteem on career maturit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8.
- [5] B. G.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youth's attachment and career

maturity”, Dongbang Culture University, Seoul, 2015.

[6] S. N. Shin,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mediated by self-efficac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5.

[7] O. Jung,“(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8.

[8] J. M. Jung,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tyle and occupational engagemen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11.

[9] E. M. Lim, “The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tudent’s Career Maturat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5, No.3, pp.667-680, 2004.

[10] S. R. Kim, Y. J. Hwang, “The Influence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and Program Evalu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9, No.2, pp.167-190, 2016.

[11] J. E. Park, J. A. Lee, J. Y. Lee, I. J. Chung,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overty”, *Korean Association of Adolescent Welfare*, Vol.13, No.3, pp.93-116, 2011.

[12] S. Y. Jeon, “The Effect of Self-Esteem, Parent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Matur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Cheonan, 2015.

[13] K. H. Le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Occupational Value”,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97.

[14] O. H. Choi, “The Influe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and Style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on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6.

[15] J. A.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reading research program on the Career maturity”, Doctoral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2015.

[16] Y. J. J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Training Program on Career Maturit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0.

[17] H. J. An, C. H. Lee, “The Effects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throu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Vol.24, No.1, pp.1-21, 2011.

[18] S. Y. Kwon, Y. S. Park, J. Y. Song, “The Influence of Peer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of the high school student : Focused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28, pp.123-146, 2014.

[19] W. S. He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areer Maturity and Parental Attachment in Adolescence: The Longitudinal Effect of Self-Control As a Mediator”,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Gyeonggi, 2013.

[20] J. Y. Choi, “A Study on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2016.

[21] C. M. Seol,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mental health, Attachment to Friends and Parents and Career Maturity”,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Daegu, 2010.

**정 경 화(Kyung-Hwa Jung)**

[정회원]



- 2012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명리 진로상담 박사과정)
- 2009년 2월 ~ 2013년 6월 :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직업상담사
- 2013년 7월 ~ 2018년 6월 : 서울고용노동청 직업상담사

<관심분야>

성격심리, 직업정보, 선천적성, 직업상담

**김 기 승(Ki-Seu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전공 (직업학석사)
- 2011년 2월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사회교육전공 (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전공 (직업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국선천적성평가원장

- 2012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격심리, 선천적성, 직무분석, 타고난 재능